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디카시 모음집

알찬 하루

나를 나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하루

|알찬하루 자조모임 시집|



노틀담복지관

목차

송추계곡

05	계곡
06	맑은 물
07	몬스터 볼
08	어느 여름 날..
09	무제
10	다리 풀잎
11	걱정 끝
12	꽃
13	

아라마루

15	폭포
16	길
17	폭포
18	폭포안개
19	속마음
20	폭포
21	산

인천대공원

23
24
25
26
27

꽃
길
길 위에서
봄의 향기를 느끼며
일상 속 꽃과 벌

계양산

29 가로수 낙엽
30 비오는 날
31 나만이 좋은 풍경
32 동행
33 가을낙엽
34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은 쉽다.
35 계양산
36 나무
37 가을비
38 나뭇잎

행주산성

40
41
42
43
44
45
46

조선 1593년
권율장군
인생의 고독길
오솔길
꼭대기
한강
소나무

속초계곡



계곡



계곡은 맑은 하늘을 그렸어요.
계곡은 높은 산들을 그렸어요.
계곡은 푸른 나무들을 그렸어요.
계곡은 시원한 계곡물을 그렸어요.
계곡은 내 마음 행복을 그렸어요.

_임경희

맑은 물



물이 맑았다...
시원해 보였다...
발을 담가 보았다...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다

_윤영건

몬스터볼



나무인가 보물인가 몬스터볼이네
숲은 시원한데 몬스터볼만 따뜻해 보인다
저기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아니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계곡 와서 동심으로 돌아가네
시원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네

_엄지성

여름 어느날...



경치, 물소리, 매미소리...

여기 오기를 잘했네...

공기 쐬고, 산들이 많고

바람 소리가 좋다

물의 맑음도 좋다

_김구현

무제



지친 일상 어느덧 지나갈 계절이지만
올여름 마지막 나들이라 생각하니 아쉬울 뿐...
계곡에 컵이 버려져 자세히 집어 보니
스트로크가 꽂힌 버려진 플라스틱 컵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씁쓸함만 가지고
나들이를 마친다.

_김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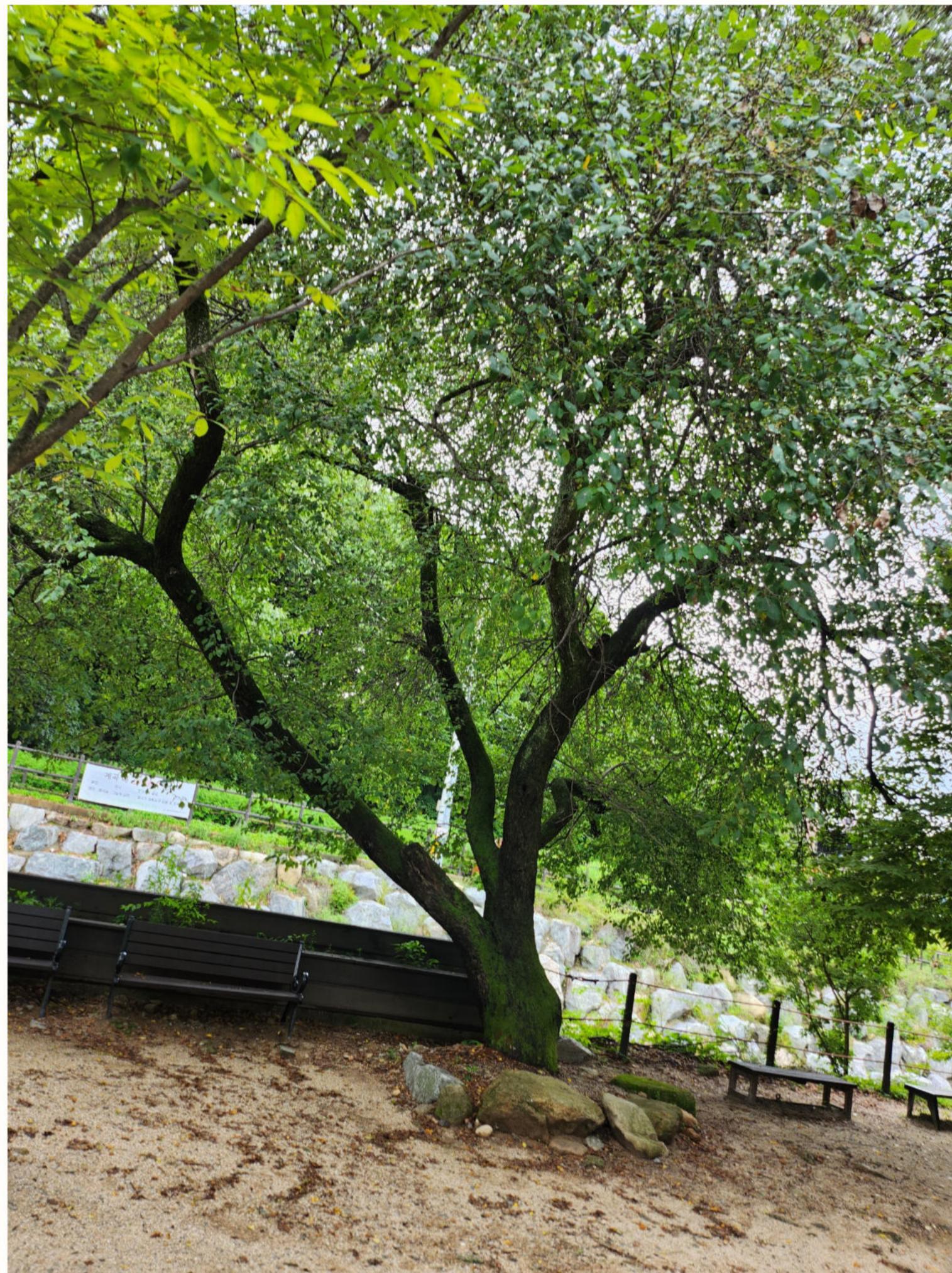
다리 풀잎



다리가 있는 마을에
풀잎들은 짙어지고
사람들과 걸으니
추억을 그리며 웃으니
아름답도다 북한산

_박건오

무제



북한산에서
송추계곡의 여름날의
고목이 비바람과 세월에
세월에 이끼가 쓰다듬듯이
찬란하게 서 있다.

_전용완

걱정 끝



비가 올까 조마조마했던 어젯밤
긴장 반 설렘 반
오늘이 되고 계곡에 도착하니 걱정 없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오길 잘했다. 나 자신이 고맙다.

_허현진

꽃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시냇물 소리 풀잎이 반짝이고
맑은 햇빛이 너울지다,
깨끗한 바람이 꽃잎을
하늘거리며 스치운다.

_황소희

아라마루



폭포



물이 멋있고
물이 시원하고
공기 좋고
여기 오기를 참 잘했다
가족들과 같이 오면 참 좋겠다

_김구현

길



어느 가을날
하염없이 흐르는 강을 보면서
난 지금 어디쯤 흘러 가고 있을까...
생각해본다. 생각해본다.
흐르는 강처럼 정착지가 어디가 됐든
종착지를 향해 따라가리

_김형기

폭포



가을 하늘 아래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를 보니 모든 스트레스가
시원스럽게 물보라를 쏟으면서
세월의 심연 속으로 사라지며 흘러간다

_전용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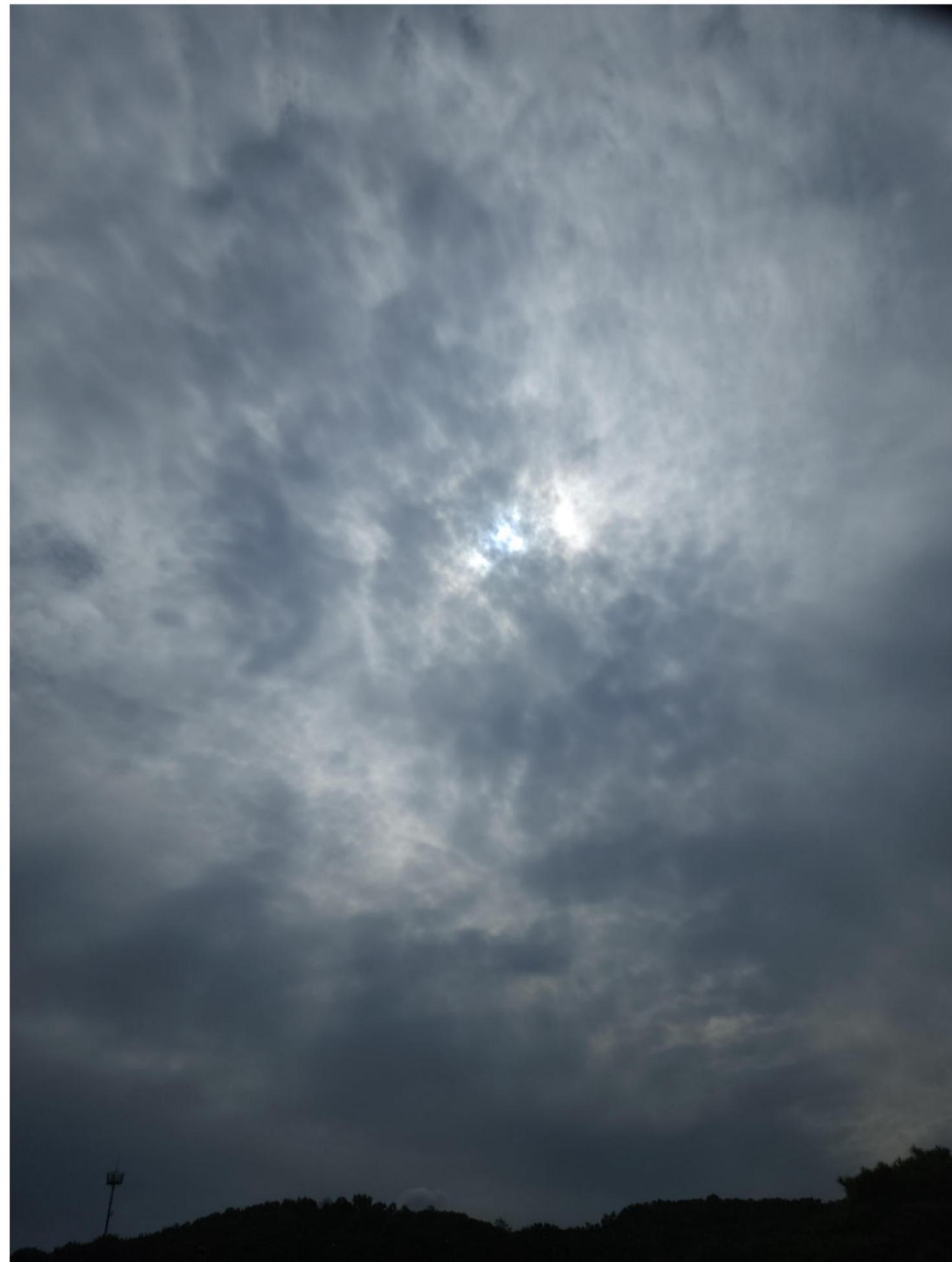
폭포안개



폭포와 거리의 연인들
물방울도 흘날리고
오늘도 좋은 날이었구나!
사진도 찍고 웃음짓는
폭포의 한가운데서!

_박건오

속마음



비가 온 어제
오늘도 날이 흐리나?
선선한 바람 흐린 구름 속
부끄러운 듯 해가 숨어 있네
내 마음 속 느낌같기도 하구나

_허현진

폭포



시원한 물 폭포에서 튀기는
시원한 물
여름인데 물을 맞으면
시원하다. 기분이 좋다.
고인물 깊지 않고 무릎까지 오는 물 들어가
시원하게 물을 적시고 싶었다.

_윤영건

산



큰 산은 우리 아빠산 크고 높고 멀어서 가기는 힘들지만

언제나 미래의 희망을 꿈꾸게 도와주십니다.

중간 산은 우리 엄마산 크고 높고 멀어서 가기는 힘들지만

언제나 현재의 도전을 힘차게 도와주십니다.

작은 산은 내 마음산 작고 낮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힘차게 등산합니다.

_임경희



인천대공원

꽃



꽃을 보면 언제나 너무 예뻐요
꽃을 보면 언제나 너무 아름다워요
꽃을 보면 언제나 너무 착해요
꽃을 보면 언제나 너무 사랑해요
꽃을 보면 언제나 너무 행복해요

_임경희

길



단풍나무 옆으로 조용한 길
구불구불하지만 그곳을 누가 지나갔을까?
꽃이 만발하고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는 곳
푸른 하늘 구름들이 맑게 피어나고
나무 그늘 시원한 곳을 우리는 걷고 있네

_황소희

길 위에서



길 위를 걸을 때면
항상 어디로 가야하나 고민 중
이 길의 끝은 어디쯤인가
이 길이 내가 원하는 원치 않든
내가 살아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

_김형기

봄의 향기를 느끼며



갈대도 주변에 있고
봄에서 밤나무도 보고
낙엽 진 나무도 보고 나비도 보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네
여길 오길 참 잘했다

_김구현

일상 속 꽃과 벌



전자기기로 가득한 내 일상
그 일상에서 벗어나 본 자연
부지런히 일하는 벌과 개화된 꽃
내 일상 속 꽃과 벌은 얼마 만일까 생각해본다
너무 아름답구나

_허현진

계 양 산

가로수 낙엽



상쾌한 바람이 부는 날
가로수 길을 걸었습니다.

낙엽은 지고 시간은 흘러갔지만,
겨울이 다가오는 준비를 하는 걸까?

나무 그늘 아래로 낙엽이 떨어지네

_황소희

비오는 날



비오는날 등산을 처음 해봤다
계양산 황소 앞에서 얼굴 사진을 찍었다
여러 가지 꽃을 봐서 좋았다
박물관을 가서 좋았다
비와서 낙지볶음을 먹어서 좋았다

_오종오

나만의 좋은 풍경



꽃이 참 좋아요.
떨어진 나뭇잎을 밟는 것이 참 좋
아요.
가을의 향기가 물씬물씬 나오.
비가 많이 내리네요.
계양산 오기를 참 잘했어요.

_김구현

동행



나는 지금 걷고 있다.
언덕길이 나온다.
언덕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앞서가는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도 모르게 따라 그냥 따라가 본다.

_김형기

가을 낙엽



가을 낙엽 위로 걷는 날 오늘
비도 살짝 내리고
꽃잎도 여물고
사람들과 커피 마시니
참 즐겁다

_박건오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은 쉽다



한단계 한단계 계단을 딛고 올라가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 포기하고 나태해지면 교만해져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날개없는 추락을 하기 쉽다.
있을 때 잘해야 하고 있을 때 잘 챙겨야 한다.
부모님한테도 있을 때 잘해드려야 한다.

_엄지성

계양산



등산한지 6개월 만이에요.
6개월 전에는 아버지랑 높이 정상 올라갔는데
오늘은 조금만 등산하니 쉬웠습니다.
새로운 길도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나 신기했습니다.

_윤영건

나무



나무는 언제부터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었을까요?
나무는 두 팔을 크게 벌려서 나를 반겨 주었어요.
나무는 희망찬 해맑은 공기를 인공호흡해주었어요.
나무는 지친 내 몸과 마음에 땀을 닦아 주었어요.
나무는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손 흔들어 주었어요.

_임경희

가을비



11월 마지막 비가 내리는 것 같다.
23년 마지막 비를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
큰 고목에 떨어진 단풍과 빗물이 고여있는 게
옛날 생각이 난다.
어릴 적 비를 맞으며 뛰놀던 재밌었던 생각
어느새 시간이 지난 게 느껴진다.

_허현진

나뭇잎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낙엽이 날리고
서울시 전망이 좋고
그림 전시회도 보았어요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_김구현

행주산성



조선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싸워 크게 이긴
권율의 행주대첩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수많은 부녀자들이
목숨을 걸고 앞치마에 돌을 날라
왜구와 싸워 승리한 행주대첩
나도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전장에서 그녀들처럼 용맹스러울 수 있었을까

_김형기

권율장군



권율장군에 충심을
기리며 왜군과 목숨을 건
전쟁 속에서 지금의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_박건오

인생에 고독길



아무도 없는 길을 바라보면서
고독을 느껴봤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고독을 느끼니 나름 괜찮은 것
같다.

_오종오

오솔길



봄에 예쁜들꽃 향기를 맡으며 오솔길을 걷고 싶어요
여름에 시원한 산들바람에 맞춰 오솔길을 걷고 싶어요
가을에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은 오솔길을 걷고 싶어요
겨울에 눈이 내려 하얗게 물들은 오솔길을 걷고 싶어요
마음에 건강과 행복과 사랑을 담아 오솔길을 걷고 싶어요

_임경희

꼭대기



산 아래에서 보는 꼭대기는 아득히 멀게 느껴진다.
산 중턱에서 보는 꼭대기는 아직도 높게 느껴진다.
산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기쁨으로 느껴진다.
인생은 산 아래에서 시작하지만 올라가려 노력한다.
꼭대기에서 보는 삶을 바라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_허현진

한강



한강이 보여서 시원했다.
위에 철교는 미국에 유명한 철교랑 비슷했다.
정자도 낭만 있고 멋있고
장군 석상은 위엄했고
깃발도 위엄하였다.

_윤영건

소나무



하늘 아래 우두커니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
강이 흐르는 곳
소나무야 소나무야
해질녘에 바람이 부는대로 훌러가고 있구나

_황소희



알찬 하루

발행 월: 2024년 2월
발행인: 이선애
발행처: 노틀담복지관